호남고속도로 '폭설 고립' 피해자 217명 손배소 제기

'참여자치 21' 통해…1인당 200만원

'참여자치 21'(공동대표 정채웅 변호사 등 3인)은 24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지난해 폭설로 호남고속도로에 고립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다.

'참여자치 21'은 소장에서 '도로공사의 늑장 대응으로 당시 고속도로를 이용했던 시민 217명이 13시간 동안이나 추위와 배고픔에 떨었다'면서 '도로공사는 이들에게 1인당 200만원씩 모두 4억3천400만원을 정신적·육체적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원고 측의 변호는 정채웅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12월21일 오후 2시께 호남고속도로 곡성~백양사 IC 구간(70km)의 진입이 차단되면서 고립됐다. 이들은 기상청이 이날 오전 10시 이미 대설경보를 발효했지만, 도로공사가 도로 통제를 늦게 하는 바람에 고속도로에 갇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측은 "당시의 상황은 갑자기 쏟아진 엄청난 양의 눈으로 인한 천재(天災)"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전지법은 2003년 3월 폭설로 인해 호남·중부·경부 고속도로 등에 갇힌 244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도로공사 측은 ▲고립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사람은 35만원 ▲12시간~24시간은 40만원 ▲24시간 이상은 50만원을 지급하고, 여자·미성년자·7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10만원을 추가로 보상하라"고 지난 19일 판결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장성서 6세 어린이 개에 물려 중태

6세 여자 어린이가 개에 물려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어린이들이 개에 물리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장성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6시20분께 장성군 삼서면 모 주유소 안쪽 마당에 최모(6)양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최양의 어머니가 발견, 119구조대에 신고했다.

최양은 이 주유소에서 키우던 경비견종인 3년생 도베르만에게 얼굴과 목 등 10여곳을 심하게 물려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당시 최양은 주유소에서 세차를 하던 어머니를 기다리다 주유소 안쪽의 토끼 우리에서 놀던 중 줄에 묶여있던 개에게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유소 업주 김모(30)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며 이 경비견은 도살처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월 11일에는 장흥군 해진면 한 축사 앞에서 초등학교 1학년 민모군(7)이 셰퍼드에 물려 부상을 입었다.

/장성=고재빈기자 jbgo@kwangju.co.kr

■ 고용 알선 시스템 문제 없나? 상 실태

최저임금에 해고 불안까지

광주 고용안정센터가 알선한 취업자들

18시간 격무… 복지는 생각도 못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회사를 그만 둔 최모(여·45·광주시 서구 쌍촌동)씨는 지난 연말 광주지방노동청 산하 '종합고용안정센터'를 통해 맛살 등 냉동식품을 생산하는 D사의 제품 포장원으로 취업했다. 보수는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인 시급 3천100원이었으며, 1주일에 3~4일은 밤 11시까지 잔업을 해야했다. 작업이 계속되는 오전 8시30분~오후 5시30분까지 9시간 동안은 화장실조차 마음대로 갈 수 없었다.

그래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3개월 뒤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는 회사의 약속만을 믿고 버텼다. 하지만 설 연휴가 끝난 1월 말께 일감이 떨어지자, 회사는 최씨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

센터 소개로 지난해 12월 광주 D철강의 프레스 포장원으로 입사한 이모(34·광산구 우산동)씨는 1주일에 1~2일은 새벽 3시까지 잔업을 하며 많게는 18시간 이상 근무해야 했다. 한 달 기본급도 고용안정센터가 알려온 127만원이 아닌 70만8천원이었고, 잔업수당까지 포함해도 107만원이었다. 견디다 못한 이씨는 한 달 만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입사날짜는 기재돼 있지만 계약기간은 공란으로 돼 있어 우리들은 회사 측의 한마디에 의해 잘리는 '파리 목숨'"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개인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다 지난 1999년 퇴직한 김모(여·40·북구 각화동)씨는 직업학교에서 한식조리사와 제과기능사 자격증 2개를 딴 뒤 식당문을 두드렸다. 경력이 없는 김씨는 지난해 5월 센터의 알선으로 S어린이집 주방보조원 자리를 소개받았다. 월급은 70만원. 턱없이 적었지만 김씨는 "이제 시작이다"는 생각에 받아들였다.

하지만 주된 일은 오전 9시30분에 출근해 걸레로 바닥 구석구석을 닦는 청소였다. 갑자기 고된 일을 하니 허리를 다쳤고, 병원은 밀걸레를 사용하라고 권했다. 김씨는 어린이집에 밀걸레를 사 달라고 요구했지만, "당신 돈으로 사라"는 대답만 들었다. 겨울에도 따뜻한 물을 틀어주지 않아 시린 손으로 설거지를 했던 김씨는 축농증까지 앓게 됐고, 결국 지난 2월 그만뒀다.

지난해 7월 D용역개발의 보안요원으로 취업해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근무하게 된 김모(48·북구 두암동)씨는 월급 115만원 중 10만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떼였다. 그는 "회사 측에 점심식사와 최소한의 휴식공간 제공 등을 요구했지만,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 견디지 못하고 지난 3월 퇴직했지만 퇴직금은 한 푼도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취업해 본보의 설문조사에 응한 382명 중 36.4%인 139명이 직장을 떠났다. 이들은 한결같이 아르바이트보다도 못한 저임금과 부당한 대우를 견딜 수 없었다고 했다. 정부가 취업 알선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알선해 준 업체의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못자리 설치 분주한 농촌 광주시 남구 대촌동 대지마을 농민들이 휴일인 23일, 풍년농사를 기대하며 못자리를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농자재대와 인건비 등이 크게 오른데다, 수입쌀이 시판되기 시작해 마음이 어둡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간호사 자살

"상사 비인격 대우에 모멸감"

지난 21일 오전 9시20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화순전남대병원 간호사 김모(여·38)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차 안에서 빈 주사기가 발견된 것으로 미뤄 김씨가 스트레스를 못 이겨 약물을 이용,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김씨는 죽기전 동료들에게 "의사와 수간호사에게 인격적인 무시와 모멸감을 습관적으로 당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병원지부'(이하 병원노조)와 유족들은 이와관련 2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김씨의 자살은 직장 상사들의 비인격적인 행위에 따른 심한 스트레스를 못이겨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병원노조는 또 ▲산업재해 인정 ▲병원장 공개사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조요구 수용 ▲해당 관리자 중징계 등을 요구했다.

화순전남대병원 측은 이에대해 "공개사과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관련자 처벌에 관해서는 병원 자체 조사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나원참 〈6812〉 김종두

연휴2차 동림 ●1
대주 피오레
1,300여 세대 중 35평형 352세대
문의 (062)366-4220

한강에 죽은 돌고래 떠올라

쌍나팔

○…지난 22일 오후 5시10분께 서울 한강 시민공원 반포지구 앞 인공섬(서래섬)과 한강시민공원 사이에서 길이 140㎝에 40㎏ 가량의 돌고래〈사진〉 사체가 떠 있는 것을 한 시민이 발견, 119에 신고.

○…이 돌고래는 꼬리 지느러미에 큰 상처가 나 있고 부패가 진행돼 죽은 지 며칠 지난 것으로 추정됐는데, 소방당국은 사체를 한강시민공원사업소 반포지구 사무소에 인도.

○…반포지구 사무소 관계자는 "바다와 연결된 하구에서 돌고래가 발견되는 일은 가끔 있지만, 한강에서 돌고래가 발견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전언.

/연합뉴스